

## 중세어의 동사 활용형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 조건과 그 기능\*

고영근

\* 이곳의 용어는 고영근 (2018)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것. 성명 다음의 연도, 홍길동 (1980)은 고영근 (1980/1989/1999)의 참고문헌 참조. 초고를 읽고 고견을 주신 이용 (서울시립대), 이금영 (충남대) 교수께 고마운 인사를 표한다

1. 중세나 고대어의 질서 파악에는 현대어에 대한 지식 필수적. 나의 학문 역정 간단히 소개  
Jespersen (1924)의 서문, 중세어 연구에서 해결 어려운 문제는 ‘ㅎ’ 조사(김민수 1952).  
선행 어미 ‘습’의 기능 (허웅 1954), 음성 연결체 ‘오’의 교체 조건과 선행 어미로서의  
‘오’의 기능 (허웅 1955, 고영근 1978), 해결의 실마리 제공: 김두봉 (1916), 정인승  
(1956), 이른바 ‘여’ 불규칙 활용의 교체 조건 참조 (하여, 하였다, 비교: 먹었다/막았다)

2. <역대한국문법대계> 편찬 (1975), (1976~1977) 서독 1년 반 체류 연구, 귀국후 국어문법연구  
구 1세기 (1978~79) 집필, 주시경 (1910), 김두봉 (1916) 등 초기 문법서 섭렵. 후자에서 시  
사 받음 (역문 1-22, 128쪽에서 “‘아라’는 남음 아래 쓰고 ‘거라’는 제음 아래 쓰며” 에서 코  
투리 잡음. 이는 당시까지의 중세어 문법의 미해결 과제였음

고노 (1950)에서는 intensive stem, 허웅 (1955: 133)에서는 부사형, 강조의 기능 부여, 유  
창돈 (1963)에서 ‘거/어’의 동질성, 화자의 임의에 따라 수의로 교체되는 대응 형태소. 허웅  
(1975)에서 비례적인 대응 형태소. 형태소 분석 기준 (고영근 1978) 지키지 않음. 강조 영탄법  
에 넣어 처리, 탈고후 [타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 확립. 안병희 교수와 허웅 교수  
상의. 긍정적 반응. 허웅 (1975)는 진실에 많이 다가섰으나 예외 해결 못함. 유창돈 (1964)의  
대응 형태소. 선학들이 남겨 둔 예외를 고영근 (1986)에서는 능력성으로 처리함 (뒤에 나옴)

### 3. 상관 항목과 무관 항목의 책정

#### (1) 어간에 직접 ‘거/어’가 붙는 것

ㅎ거지라/ㅎ야지라/오나지라...(정동사, 곧 종결어미), ㅎ거늘/ㅎ야늘/\*오나늘 (부동사,  
곧 연결어미)

#### (2) 1) 추측법 ‘-(으)리-’의 뒤에 ‘거/어’가 붙는 것

ㅎ리어다/ㅎ려다...(정동사), ㅎ리어늘/ㅎ려늘...(부동사) ,

#### 2) 추측법 ‘-(으)리-’의 앞에 ‘거/어’가 붙는 것

ㅎ거리랴다/\*ㅎ야리랴다

\* 무관 항목이란 가설이 적용 안되는 항목

예: ㅎ간: 자·타동사에 두루, 10개 항목

#### (3) 상관 항목을 대상으로 한 가설의 실증

타동사: 더더시늘, 무려늘

\* 4개 유형

可可型/可不形/不可形/不不形

1) 可<sub>可</sub>型: ㅎ거다/ㅎ야다. ㅎ거(가)지라/ㅎ야지라

2) 可<sub>不</sub>形: ㅎ거사/ㅎ야사. ㅎ건/ㅎ안

3) 不可<sub>形</sub>: ㅎ거늘/ㅎ야늘

구루미 비취여늘

\* 비취-는 비타동사, 곧 자동사인데도 타동사 표지 ‘어’ 붙음. 그러나 동작주 ‘하늘ㅎ’을 상정하면 타동문이 되어 예외 아님. 이 문제는 고영근 (1986)(한글 192)/고영근 (1995/2004: 131-161)에서 자세히 다룸

타동사 표지 ‘어’는 인용 구문에도 실현됨 (고영근 1986, 1989/1999: 3-14)

4) 늣 믹븐 쁘들 돌따 ㅎ야시<sup>늘</sup>

#### 4. 형태 자질과 기능의 문제

현대어에서 동사 ‘하-’의 활용형과 그 기능

하여. 하였다. 하여라

위의 세 어형은 그 활용형이 \*하 (<\*하아) (비교: 파, 꾀다. 파라), \*했 (<\*하았다) (비교: 파, 꾀다)으로 되어야 할 것이 ‘하여, 하였다’가 되니 ‘여’ 불규칙 활용으로 처리됨. 그런데도 우리는 ‘여, 였’을 대상으로 ‘여’ 불규칙 동사라 부른다. ‘거’ 계열도 마찬가지다. 위가 ‘여(씨)’이 동사 어간 ‘하-’의 어간 자질에 의해서 선택되듯이 앞의 ‘거/어’도 어간 자질에 의하여 선택된다. 앞의 ‘여’에 모종의 문법 범주를 부여할 수 없듯이 ‘거/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명령형에 나타나는 ‘가거라, 오너라’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의 ‘거, 너’는 형태 자질에 불과하다. 과거 우리 선학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강조, 가상, 완료” 등의 기능을 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형태소와 통합관계나 계열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기능을 줄 수 있다.

가거다 비교: 가다. 가느다(떨어져 나옴)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에는 어미의 일부분에 지나지 못한다.

가거늘, 비교: \* 가느늘. \*가더늘 (못떨어짐)

이는 ‘하다’의 활용형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다

하였다. 비교: 하다 (떨어짐)

하여서 비교: \*하서 (못떨어짐)

\* 몰아서 확인범이라 함은 잘못. 고영근 (1981)에서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경우의 ‘거/어’를 확인범이라 함

#### 5. 차자 표기 자료의 ‘거/어’ 교체의 검증

(1) 고영근(1985)

1) 구결문헌: ‘거’는 ‘巨, 去’(전자는 유서, 후자는 불서), ‘어’는 ‘良, 亦’로 표기됨.

대명률직해(1395)로부터 후대의 이두 자료 증명

2) 계림유사 (1103~1104)와 조선관역어 (15세기초)에도 교체 예 보임

座曰 阿則家羅(앗가라) (‘앗거라’를 적은 것임)

天晚: ...展根格大(하늘 점글거다)

3) 향가 자료 (1950),

奪叱良乙 (앗아늘)

\* 목적어 구문 옳지 않음, 접속 구문임. 중세어 관련 예문 많음. 중세 문헌에 그런 예 많음 (허용 1875). ‘앗 (앗)아늘’이 옳음, 빼앗으니

4) 조선전기 이두 자료 (박성종 2016: 839)

眠爲去沙 (잠들어(<거)사) (양잠 25ㅎ)

庚辰年分 身死故爲良在乙 (明文, 박성종 2016: 395)

\* 위의 책(388쪽)에는 '서법'이라고 하나 부동사 어미(연결어미)임. 앞의 예는 자동사에 붙음, 뒤의 예는 '죽거늘'로 해독되는데 타동사 표지 '良'이 붙음. 동작주를 상정할 수 있으면 타동사 표지 '良'이 붙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음

5) 김소희 (1994), 이금영(2000)

\* 전자에는 16세기에서, 후자에는 차자자료에서 근대어까지

6. 앞으로는 그 사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찰, 구결,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去/良'의 용례를 시대별로 면밀히 고찰하여 형성사를 입체적으로 밝히는 작업 수행 필요. 조선 중기 및 후기의 이두 자료는 문어적이기보다 구어적 면 많음, 이두는 관공서의 서리들의 공식 문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되지 않나 한다 (조남곤 2019)

### 참고 문헌

- 고영근 (1978), 형태소의 분석 한계, 언어학 3,  
--- (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に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 9: 55-99, [국어형태론연구](1989/1999: 443-490)에 "동사 표지 거/어"의 교체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실림.  
--- (1985), 處容歌의 한 解讀, [건국어문학] 9·10(金一根博士華甲紀念論叢): 903~911; [단어·문장·텍스트](1995: 313-322)에 다시 실림.  
---(1985), 形態資質과 統辭構造의 相關性에 대하여, [歷史言語學]--金芳漢先生回甲紀念論文集(도서출판 전예원): 77-87; [국어형태론연구](1989/1999: 3-14)에 "형태부와 통사부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실림.  
--- (1986),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구조, [한글] 192: 43~76; [단어·문장·텍스트](1995/2005: 131-161)에 다시 실림.  
--- (1999), 국어형태론연구 (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5), 단어·문장·텍스트 (보정판), 한국문화사,  
--- (2018),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김두봉 (1916), 조선말본, 신문관 (역문 1-22)  
김소희 (1996), 16세기 국어의 '거/어'의 교체, 서울대 국문과 석사논문  
김민수 (1952), ㅎ 조사, 국어국문학 1.  
이금영 (2000), 선어말 어미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박성종 (2016), 조선 전기 이두 연구, 역락.  
오창명 (1995), 조선 전기의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유창돈 (1963), 선행 어미 '-가/거-', '-아/어-', '-나-' 고찰, 한글 132  
정인승 (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조남곤 (2019), 16세기 노비결속입안의 이두 연구, 고려대학교 국문과 석사논문.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고영근 밖에 2011 교감]  
허용 (1955), 용비어천가, 정음사  
--- (1975), 우리 옛말본, 정음문화사.

고노 (河野六郎) (1950), On the Intensive Stem of Middle Korean, 言語研究 16(日本語  
學會

Jespersen (1924), Philosophy of Grammar,

